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 고정하. 야고보 916-212-3747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지혜서 3:1-9	제2독서	로마서 8:31-39	복음	루카 9:23-26
--------	------	-----------	------	-------------	----	------------

◎말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삽시다.>

오늘은 한국의 첫 사제요 순교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동료순교자들을 기리며 경축하는 날입니다. 순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1)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우리의 순교자들은 당당히 순교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루카 9,26) 배교의 말 한마디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너 천주학쟁이지!” 하고 물으면 순교자들은 자신 있게 “예!” 라고 당당히 대답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예” 라고 대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자신 있게 천주교 신자로서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호를 긋고 있습니까? 누가 볼까봐 옆으로 살피고 난 뒤에 재빨리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편한 것만 찾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서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피를 흘리는 순교는 할 수 없지만, 일상의 삶 안에서 순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내 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신자답게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일상의 삶 안에서의 순교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 8,35.39)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김대건 신부님과 동료순교자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으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 안에서 순교하며 살아갑시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9월 19일(화)	연중 제24주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445.00 \$ 1,277.00
9월 20일(수)	성김대건안드레아사제와성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자들대축일	오전 7시 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120.00 \$ 115.00
9월 21일(목)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오후 7시 30분	성 물 방 주일학교	\$ 218.00 \$ 5,873.00
9월 22일(금)	연중 제24주간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원캠페인 교구2차헌금	\$ 100.00 \$ 240.00
9월 23일(토)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오후 7시 30분	기타수입 합 계	\$ 300.00 \$10,688.00
9월 24일(일)	연중 제25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84명 성인: 200명
교무금봉헌자	박판기.국부자(9-12월)최준규(9-12월)김초지(8-9월)김옥동.임채봉.지동순(7-8월)최원숙(4월) 임원호.안선미(8월)이재덕.김에릭.허형.허용희.김숙자.전기례.황호민.박용호.김병준.지영욱 안기창(9월)우순희.박을생.이재성(10월)			

◎신앙생활(가정의 썬신;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2017년도 미주가톨릭문인협회 신인상 수상작(시부문)

통마늘 인생

-김은영.프란치스카

머리를 맞대고 수북하게 쌓인
통마늘앞에 마주앉은
친정엄마와 딸.

큰쪽은 큰대로....
작은쪽은 작은대로...
기쁨과 아픔이 짝차서 영글고.

큰쪽을 까면서 좋았던 기억을
작은쪽 만나면 감춰던 슬픔을
하나씩 하나씩 쏟아내는 무수한 수다 보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며
속썩혀 불효한 사촌오빠며
남편을 여윈 친척언니 애기와
옛동네의 바람난 아저씨땀에
울고불던 아줌마의 이야기로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됐다.

마늘쪽을 차근차근 까는동안
어느새 마늘은 웃을 다 벗었다.
모녀의 과거가 수다속에
한꺼풀씩 사라지듯이.....

마늘보다 더 많이 나온
모래성같은 껍질 무더기 치며
인생은 알맹이보다 버려할것이
이처럼 더 많은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마를 맞대고 85세의 노모와
옛 이야기를 하며 마늘을 까는
이런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까.....

마늘을 다 까고 툭툭털며
펼쳤던 자리에서 일어나듯이
이 세상을 툭툭털고 일어나야할 시간이
모녀에게 가슴 시리게 다가오고 있다.
부디
더디오기를.....

2017년 1월 8일.
친정엄마를 배웅하고 돌아오는길에.

할머니의 유학

-이만구.바오로

양지바른 뒷마루에 걸터 앉아
빠진 이를 들어 내고 깔깔 웃는
우리 동네 역마살 낀 할머니가
먼곳으로 유학을 떠난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굳이 말리지만
지난 여름 큰아들 앞서 보내고
혼자서 쿵쿵 앞더니만 웃 한벌
꽃신 한켠레도 넣어 간답니다

그 나이에 무얼 더 배우겠다고
몇권의 잡기장을 책보에 싸들며
이제 떠나기로 작정한 할머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답니다

동네 이장이 나서서 가지 마시라
서양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라
신도불이가 최고라고 여쭙어 봐도
한사코 아주 멀리 살러 간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황애다/원정은.카타리나/성낙순.안나
백정심.막달레나/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
김옥륜.세실리아/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
김숙자.수산나/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
김미숙.모니카/황순이.마리아/최이주.베아타
신용경.그레고리오/엄모니카/이규청.제노비아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
김영자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최동현.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최범준.베드로	생	(생일)정덕순.막달레나 영육간 건강	서바오로.안나
연	송순덕.안토니아의 영혼을 위하여	김일주.안나	연	홍재구.마태오, 도무생.안나의 영혼을 위하여	송돈희.요셉

간
장
종
지

◎하나 될 날◎
나 그대와 하나 될 날
나 그대와 하나 될 날
그날 위해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 길어올리네
(마종기 노렌조.시인,의사/최창원 니콜라오.화가)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David's TV & Computer Repair
6743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M-F: 9am-5:30pm
Sat: 10am-1pm
장영수(요셉)
(916)545-4885
www.davidtvrepair.com

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 #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Bad Credit? Call For Free Credit Titan Credit
1911 Douglas Blvd.
Suite 85-416 Roseville CA 95661
Larry Chiarella, Esq
(916)709-7777
rarry@titancredit.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

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 상해보상. 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막달레나)
danieelaw@gmail.com
(916) 922-0107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

신세계여행사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메리서부동산·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7803 Laguna Boulevard
suite 200, Elk Grove CA 95758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tr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

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916)860-3873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

